

## 주요 내용

1. [대한민국 마약 실태 1]  
10대 청소년, 1만 명 이상이 마약 중독!
2. 최근 조사통계 언론보도
  - 1) 한국인의 인간관계 트렌드 변화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 10대 청소년, 1만 명 이상이 마약 중독!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수리남’에서 다루는 마약 밀매 조직 그리고 최근 유명 작곡가 겸 가수의 마약 투약 등 끊이지 않는 연예계 마약 범죄로 ‘마약’ 문제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국내 마약범죄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해 국내 마약류 사범은 2010년 이후 10년 간 66%가 증가했고, 특히 인터넷, SNS의 발달로 마약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현재 10대 청소년 중 1만 명 이상의 마약중독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마약의 특성상(중독성 등) 한 번 빠지면 평생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우려된다. 마약 문제가 사회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면서 최근 정부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넘버즈 <163호>는 한국사회를 좀먹는 ‘마약범죄’ 실태를 살펴보고, 이어서 다음주 <164호>에는 실제 마약 중독자들이 어떻게 마약을 접하게 됐고, 마약을 어떻게 사용하고 현재 심신 상태가 어떤지 ‘마약 중독 실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 교회가 마약의 ‘유혹’으로부터 젊은이들을 보호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역할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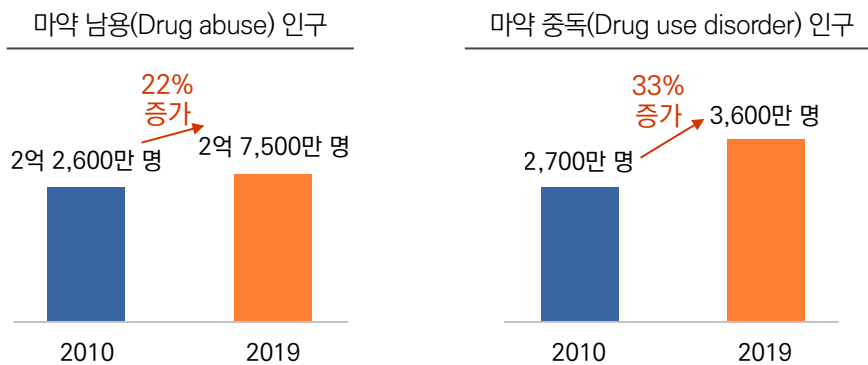


# 01

## 세계 마약 인구, 9년 새(2010~2019) 22% 증가

- ▶ 마약이라 하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말한다. 마약·항정신성의약품·대마를 마약이라고 혼용하여 사용하나 정확한 용어는 '마약류'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약의 특성으로 '의존성', '내성', '금단증상', '사회적 해악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 ▶ 세계적으로 마약 인구가 증가 추세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세계 마약 보고서 2021'을 보면 '세계 마약 남용 인구(최근 1년 이내 마약을 사용한 15~64세 인구 기준)'가 2010년 2억 2,600만 명에서 2019년 2억 7,500만 명으로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600만 명이 마약 중독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수치 또한 2010년 2,700만 명 대비 33%나 높아졌다.

[그림] 세계 마약 남용 및 중독 인구 (2010 vs 2019)



\*자료 출처 : UNODC, 'World Drug Report 2021(1.EXECUTIVE SUMMARY)', 202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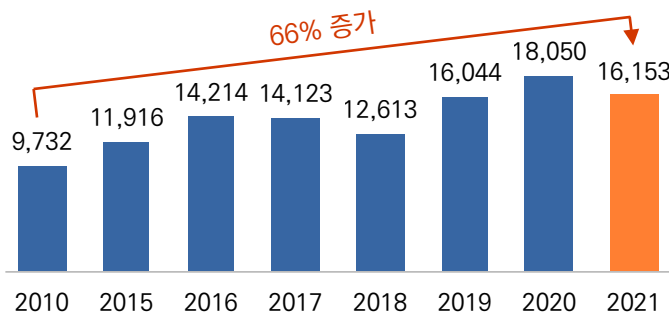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약'을 ①약물사용의 욕구가 강해져 이를 정도로 강하고 ②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③사용 중지 시, 몸매에 건디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며 ④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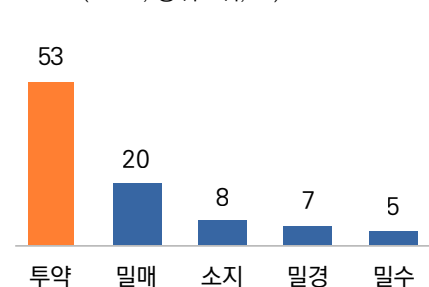
## 지난해(2021년) 국내 마약법, 1만 6천여 명으로 2010년 이후 66% 증가

- ▶ 국내 마약류 동향도 심상치 않다. 대검찰청 '2021 마약류 범죄백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단속된 국내 마약법은 총 1만 6천여 명으로 지난 11년간 66% 늘었다.
- ▶ 기존 마약법뿐 아니라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도 인터넷, SNS를 이용하여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로부터 비교적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마약법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 ▶ 범죄 유형별로 '투약'으로 적발된 경우가 53%였고, 다음으로 '밀매' 20%, '소지' 8% 등의 순이었다.

[그림] 국내 마약법 적발 추이 (명)



[그림] 전체 마약법 범죄 유형별 단속 현황\*\* (2021,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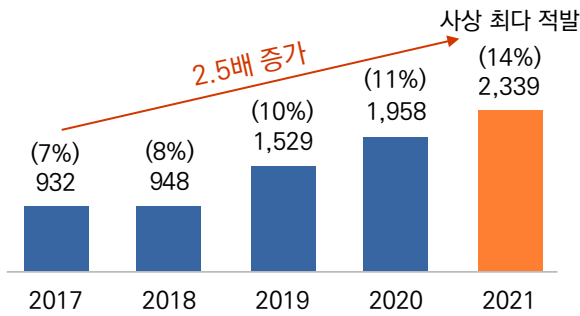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대검찰청, 2021 마약류 범죄백서(3장), 2022.05.06.

\*\*밀매: 거래가 금지된 물품을 몰래 파는 것, 밀경: 허가 없이 남몰래 약초나 농작물을 심어 가꾸, 밀수: 세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몰래 물건을 들여 오거나 내다 파는 행위

## ◎ 외국인 마약범, 지난 5년간 2.5배 증가, 태국 국적(38%) 1위

- ▶ 최근 5년간 외국인 마약범 추이를 보면 2017년 932명, 2019년 1,529명, 2021년 2,33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5년 새 2.5배 늘었고, 2021년 기준 전체 마약범 중 외국인의 비율은 7명 중 1명꼴(14%)로 나타났다.
- ▶ 2021년 단속된 외국인 마약범의 경우 '태국인'이 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인' 22%, '베트남인' 13% 등의 순이었다.

[그림] 최근 5년간 외국인 마약범 추이 (명)



\* ( ) 안은 전체 적발 마약 사범 중 외국인 마약범 비율임

\*자료 출처 : 대검찰청, 2021 마약류 범죄백서(3장), 2022.05.06.

[표] 외국인 마약범 국적별 순위 (2021, 상위 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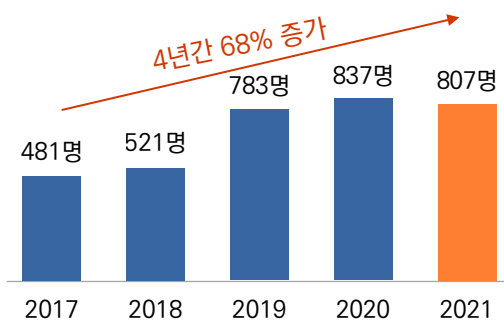
순위	국가
1	태국(38%)
2	중국(22%)
3	베트남(13%)
4	우즈베키스탄(5%)
5	미국(5%)

\* ( ) 안은 국가별 비중임

## ◎ 마약류 밀반입 관련, '마약 압수량' 4년간 무려 8.4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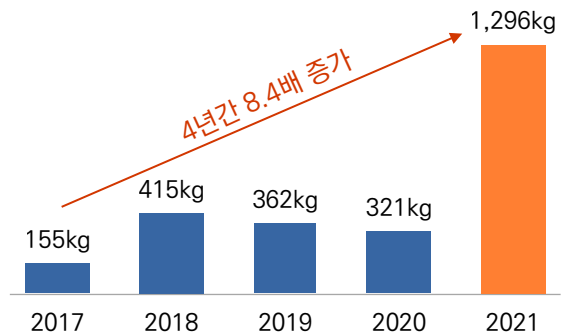
- ▶ 마약류를 몰래 들여오거나 내다 파는 '밀수 사범'은 2017년 481명에서 2021년 807명으로 4년간 68% 증가했으며, 코로나 속 '전체 마약류 밀반입'이 '대량화' 되어,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4년간 무려 8.4배나 증가하였다.

[그림] 마약 밀수 사범



\*자료 출처 : 대검찰청, 2021 마약류 범죄백서(3장), 2022.05.06.

[그림] 마약류 압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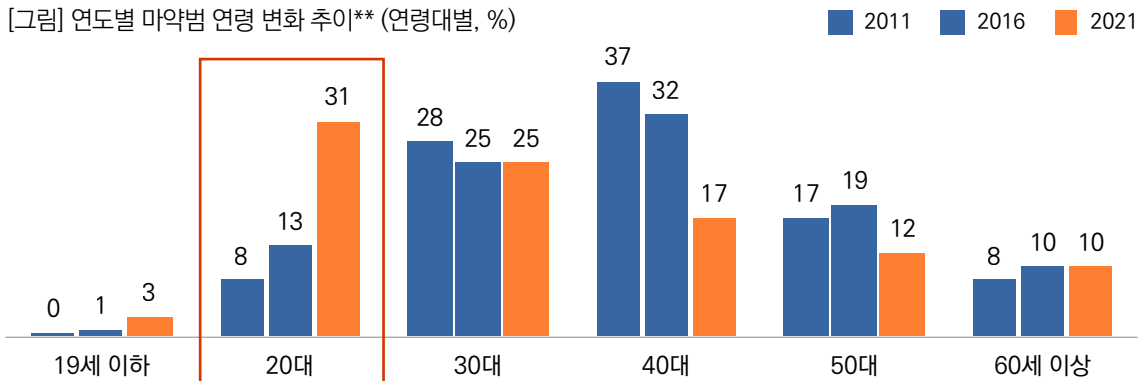


# 03

## 마약범 연령대 , 40대에서 20대로 주류층 변화!

- ▶ 마약범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11년 전체 마약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40대(37%)는 2021년 17%로 크게 줄었고, 대신 20대가 31%로 1위로 올라섰다.
- ▶ 2011년 8%에 불과했던 20대가 10년 만에 국내 마약범죄의 주류층이 된 점이 주목되는데, 전문가들은 20대 마약범이 최다인 것은 이들이 10대 청소년 때 마약을 처음 접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보고 있다.

[그림] 연도별 마약범 연령 변화 추이\*\* (연령대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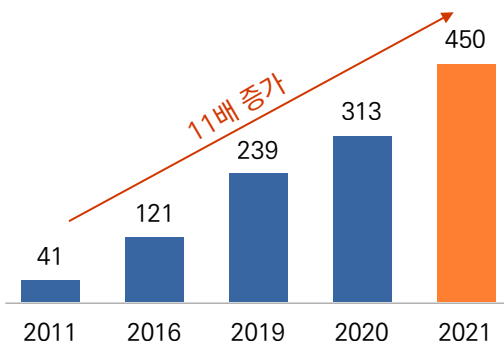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중앙일보, 「19세가 팔고 17세 집단투약... '이 말'에 10대 1만 명이 마약중독」 기사 참조, 2022.06.2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1987>)  
 \*\*연령미상은 제외

### ◎ 10대 청소년, 1만 명 이상이 마약 중독!

- ▶ 10대 마약범 수는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0년간 11배나 크게 늘었고, 최근 3년 동안도 무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10대 마약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SNS,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호기심에 마약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 한국의 마약범죄의 평균 암수율(검거 대비 실제 발생범죄 수를 계산하는 배수)은 28.57배로 추정되는데, 10대 검거 사범 450명 기준(2021년)으로 보면, 전체 10대 마약범 숫자는 실제 1만 2,857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즉 1만 명 이상의 10대 마약 중독자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림] 10대 마약범 수 증가 추이 (명)



[그림] 한국의 10대 마약범죄 수

2021년 10대 검거 사범 450명  
 → 실제 **12,857명**으로 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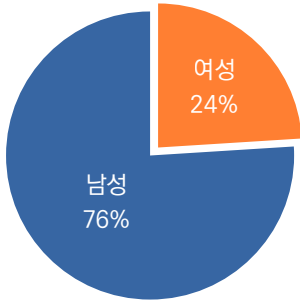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중앙일보, 「19세가 팔고 17세 집단투약... '이 말'에 10대 1만 명이 마약중독」 기사 참조, 2022.06.2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1987>)

# 04

## 마약범, 4명 중 1명꼴 여성(24%)

- ▶ 전체 마약범 중 여성 비율은 지난 5년 동안(2017~2021) 20% 이상을 상회하였고, 작년엔 24%로 집계됐다.

[그림] 마약범 성별 구성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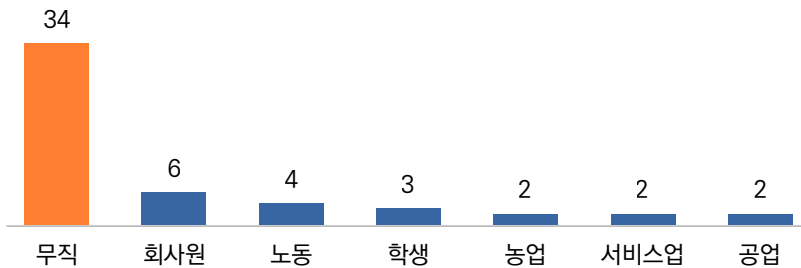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대검찰청, 2021 마약류 범죄백서(3장), 2022.05.06.

### ◎ 마약범, 회사원 / 학생 등 사회 전 계층에 퍼져있어!

- ▶ 마약범을 직업별로 분류한 결과(2021년), '무직'이 3명 중 1명(34%)으로 가장 많았지만 '회사원' 6%, '노동' 4%, '학생' 3%, '농업' 2%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발견돼 마약 범죄가 전 사회 계층에 퍼져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마약범 직업별 현황 (2021,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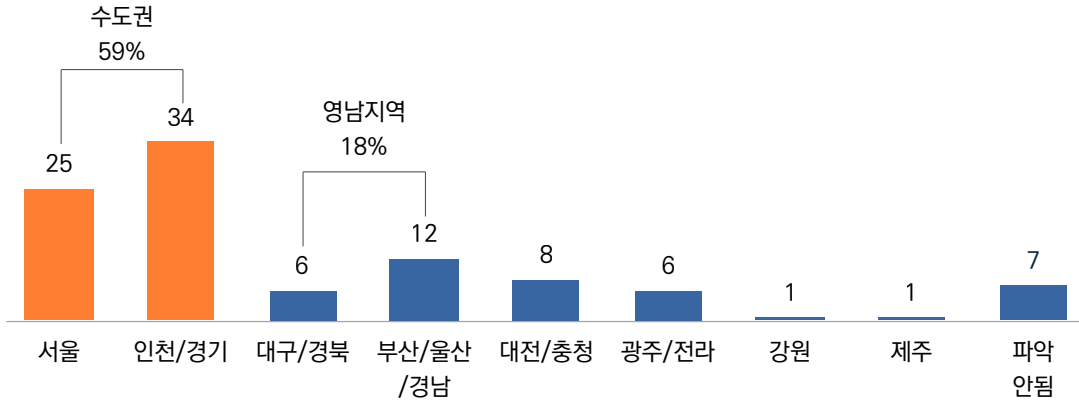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대검찰청, 2021 마약류 범죄백서(3장), 2022.05.06.

## ◎ 마약범 4명 중 3명, 서울/수도권과 영남지역에 몰려있어!

- ▶ 우리나라 마약범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5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남 지역(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이 18%로, 두 지역만 합쳐도 77%에 달했다. 마약범 4명 중 3명 이상이 '수도권'과 '영남지역'에 있는 셈이다.

[그림] 마약범 지역별 분포 현황 (20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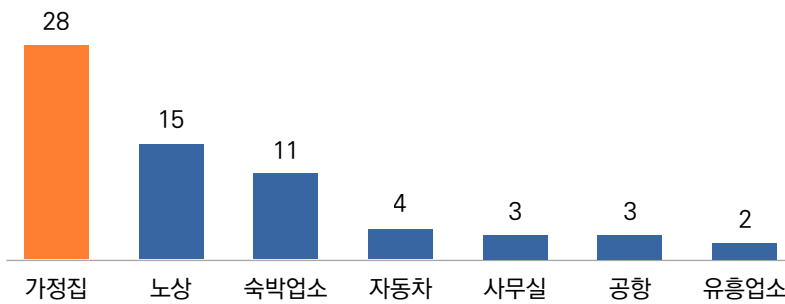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대검찰청, 2021 마약류 범죄백서(3장), 2022.05.06.

## ◎ 마약 범행, '가정집'(1위, 28%), '길거리'(2위, 15%)에서 많이 행해져!

- ▶ 마약 범행 장소로는 '가정집'(28%)이 가장 많았으나, '노상(길거리)'(15%), '숙박업소'(11%), '자동차'(4%)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마약범 범행 장소별 구성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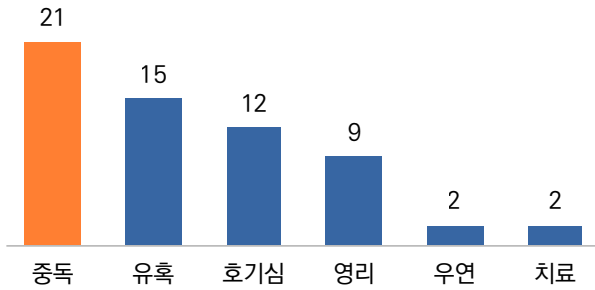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대검찰청, 2021 마약류 범죄백서(3장), 2022.05.06.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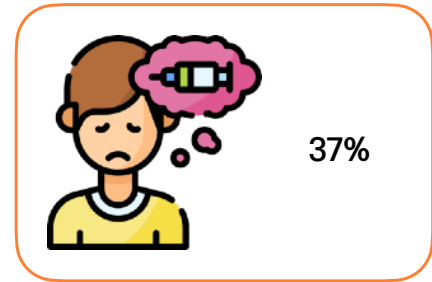
## 마약 범죄 이유, 중독(21%) 요인이 가장 커!

- ▶ 마약 범죄 원인을 살펴보면 ‘중독’ 21%, ‘유혹’ 15%, ‘호기심’ 12% 등의 순으로, ‘중독’으로 인한 재범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 ▶ 앞에서 중독(21%) 등의 이유로 ‘마약 범죄’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2021년 전체 마약범의 재범률을 살펴보면 이보다 높은 37%에 달한다. 3명 중 1명 이상은 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이다.

[그림] 마약범 범죄 원인별 (2021, 상위 6위, %)



[그림] 마약범 재범률 (2021)



\*자료 출처 : 대검찰청, 2021 마약류 범죄백서(3장), 2022.05.06.



마약은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이다. 최근 유행하는 영화 '수리남'도 마약 소재 영화이다. 그 외에 송강호가 주연한 '마약왕', 류승룡 주연의 '극한직업'도 마약을 소재로 한 영화이다. 마약을 다룬 영화가 많은 것은 마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마약이 심각해지는 것은 3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마약범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2010년 마약범이 9,732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16,153명으로 66%가 증가했다.(3쪽) 검거된 마약범이 이 정도면 실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마약 투약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심신이 피폐해지는 사람이 많아지며 마약 관련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말초적인 쾌락 추구 분위기를 퍼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마약범의 연령대가 젊어져서 20대가 마약 범죄 주류층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만큼 20대가 마약을 많이 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며 개인적으로는 자기 인생을 어둡게 만들 수 있다. 셋째는 마약이 전 계층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마약이 연예인이라든지, 성매매자라든지 특정 직업 혹은 특정 계층이 주로 했다면 이제는 회사원, 학생, 노동자, 주부 등으로 널리 퍼진 것이 다른 점이다.(6쪽) 즉 마약이 우리 주변에 가깝게 와 있어서 마약의 위험성이 커진 것이다.

왜 사람들은 마약을 할까?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마약을 하게되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도파민은 쾌락, 즐거움의 신호를 전달해서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자연, 좋아하는 물건을 소유하면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진다. 도파민은 같은 자극이 주어지면 도파민 분비량이 적어져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한다. 이것이 되풀이되면 중독으로 빠지는 것이다. 마약은 다른 물질보다 도파민 분비를 더 자극하므로 가장 강력한 쾌락과 자극을 준다. 그래서 마약을 한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 중독에 빠지는 것이다.

쾌락 추구는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 늘 기분 좋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성향인데 아무리 마약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단속을 해도 마약은 인류 역사에서 끊이지 않는다. 아마도 아주 오래 전 인간이 수렵 채취 생활을 할 때, 들판에 있는 마약성 식물을 먹고 그것이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마약은 시작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다면 마약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같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약이 주는 쾌락은 말초적이며 자기 파괴적이다. 마약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현대 시대에 말초적 쾌락 추구가 심하다는 의미이다. 고대 그리스에는 에피쿠로스라는 학파가 있었다. 흔히 쾌락주의자라고 번역되는데 이들은 평안, 고통없는 삶을 추구한다. 에피쿠로스가 무분별한 쾌락의 추구를 지지했다고 흔히 오해받지만, 그가 진실로 원했던 것은 고통의 부재-죽음의 공포와 신의 응보로부터 자유로운 만족감과 고요함의 상태-였다.<sup>1)</sup> 즉 이들의 추구하는 쾌락은 정신적 쾌락, 이성적 쾌락인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이라고 한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기쁨이다. 찬송가 442장에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 기쁨 때문에 순교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다. 우리가 마약을 거부할 수 있는 힘도 여기에서 나온다. 마약이 찰나적 쾌락, 사람을 피폐하게 하는 쾌락을 준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진실하고 영원하며 사람과 세상을 건강하게 하는 쾌락이다.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현대 문명에 맞서는 힘은 정신적, 가치적 쾌락을 추구하는 우리 기독교에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죽한 줄 알고 살아갈 때에 마약과 같은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1) <https://ko.wikipedia.org/wiki/%EC%97%90%ED%94%BC%EC%BF%A0%EB%A1%9C%EC%8A%A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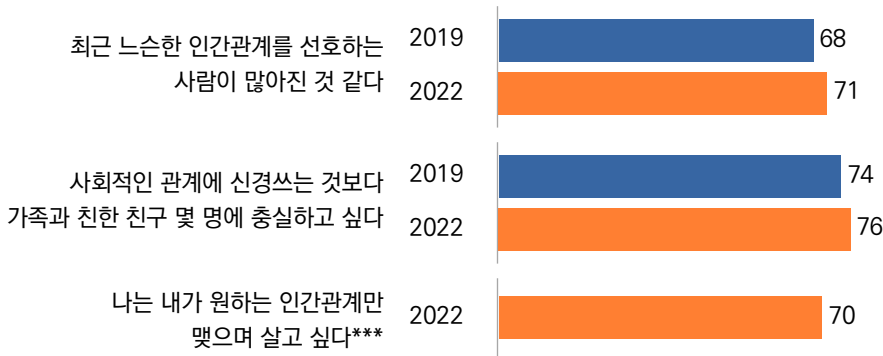
## 1. [한국인의 인간관계 트렌드 변화]



## 한국인, 코로나 이후 느슨한 인간관계 지향하되 “최소한의 몇 명에게만 충실하고 싶다”!

- ▶ 트렌드 전문 조사기관인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가 한국인의 모임과 인간관계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발표했는데,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인간관계 트렌드 변화를 읽는데 도움될 것 같아 소개한다.
- ▶ 한국인들은 코로나19 이후 학연, 지연 위주의 모임 대신 ‘느슨한 인간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보다 뚜렷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모임수를 줄이더라도 가족과 친한 친구 몇 명에 충실하고 싶어하는 강한 연대의 인간관계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림] 전반적인 인간관계 인식 (동의율,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모임(살롱문화) 및 취향 소비 관련 인식 조사', 2022.09.28.(과거 또는 현재 정기적 모임 참여 경험이 있는 전국 만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7.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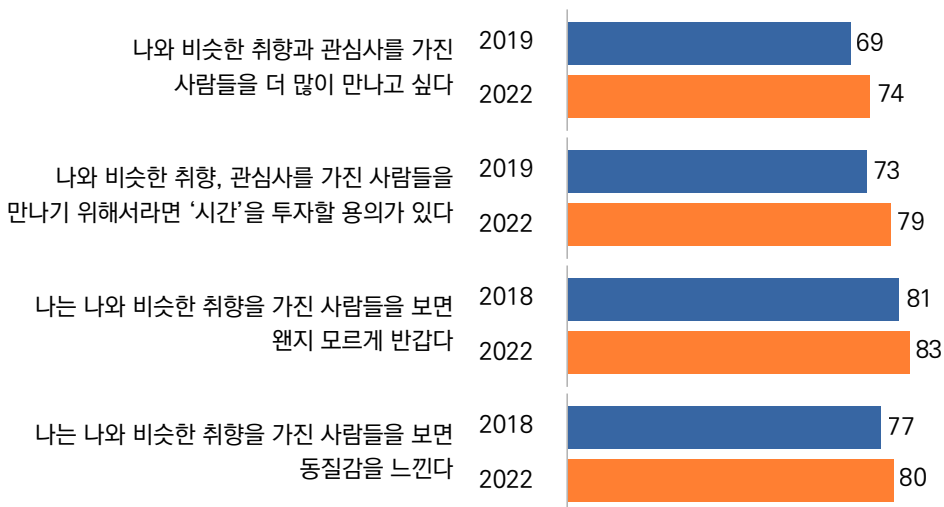
\*\*2점 척도 질문임

\*\*\*2022년만 조사함

### ◎ 코로나19 이후 비슷한 취향의 모임 욕구 강하게 나타나

- ▶ 한국인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비슷한 취향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과 더 교제하길 원하고(2019년 69%→ 2022년 74%), 이를 위한 시간 투자 의향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73%→ 2022년 79%)
- ▶ 전체적으로 비슷한 취향의 모임 욕구가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취향, 관심사 기반 모임 인식 (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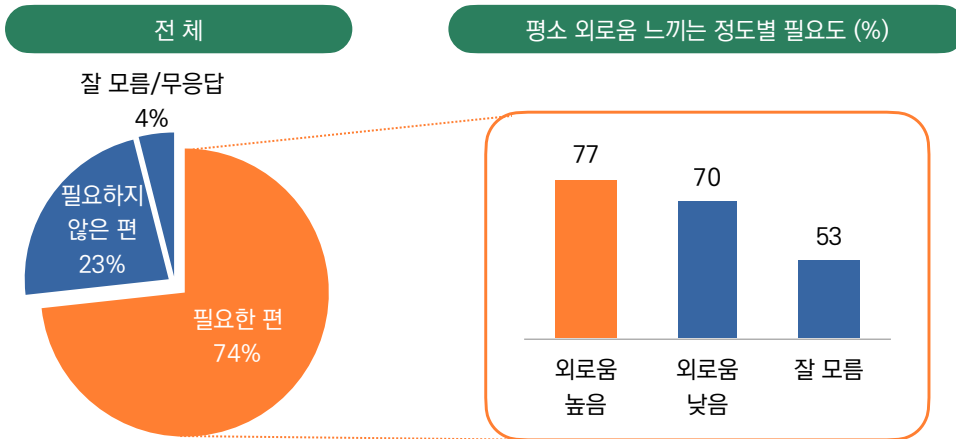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모임(살롱문화) 및 취향 소비 관련 인식 조사', 2022.09.28.(과거 또는 현재 정기적 모임 참여 경험이 있는 전국 만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7.20.~22)

\*\*2점 척도 질문임

## ◎ 다양한 모임 참여 욕구, 평소 외로움 많이 느낄수록 높아(77%)!

- ▶ 우리 국민 4명 중 3명 가량(74%)은 평소 다양한 모임(동호회)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특히 '외로움을 느끼는 수준'에 따라 살펴본 결과, 평소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응답자일수록 '모임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다양한 모임(동호회) 참여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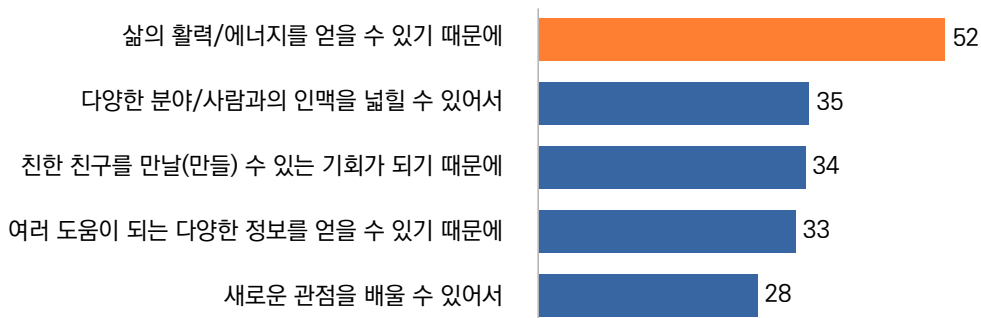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모임(살롱문화) 및 취향 소비 관련 인식 조사', 2022.09.28.(과거 또는 현재 정기적 모임 참여 경험이 있는 전국 만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7.20.~22)

\*\*4점 척도 질문임

## ◎ 다양한 모임 참여 필요성 느끼는 이유, '삶의 활력/에너지 얻을수 있어서'!

- ▶ 다양한 모임 참여 필요성을 느끼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삶의 활력/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서'가 52%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다양한 분야/사람과의 인맥을 넓힐 수 있어서' 35%, '친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 사람들이 모임을 하는 이유가 '삶의 활력과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라는 통계 결과는 교회의 대그룹 또는 소그룹 모임 시 신앙과 삶의 활력/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그림] 다양한 모임의 참여 필요성 이유 ('필요하다'는 응답자, 상위 5위,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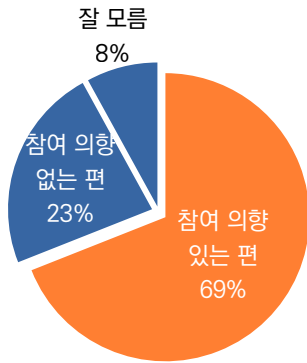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모임(살롱문화) 및 취향 소비 관련 인식 조사', 2022.09.28.(과거 또는 현재 정기적 모임 참여 경험이 있는 전국 만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7.20.~22)

## ◎ 향후 참여 의향이 있는 모임, 전 연령대에 걸쳐 ‘운동/스포츠 모임’ 선호도 높으나, 40~50대는 ‘봉사활동 관련 모임’ 니즈 비교적 높아

- ▶ 향후 다양한 모임 참여 의향은 69%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 ▶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운동/스포츠 모임’ 참여 의향률이 가장 높았다. 다만 4050세대는 봉사활동 관련 모임에 대한 니즈가 타 연령층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향후 다양한 모임 참여 의향 (4점 척도)



[표] 향후 참여 의향이 있는 모임(동호회) (향후 모임 참여 의향자, 연령별, 상위 3위,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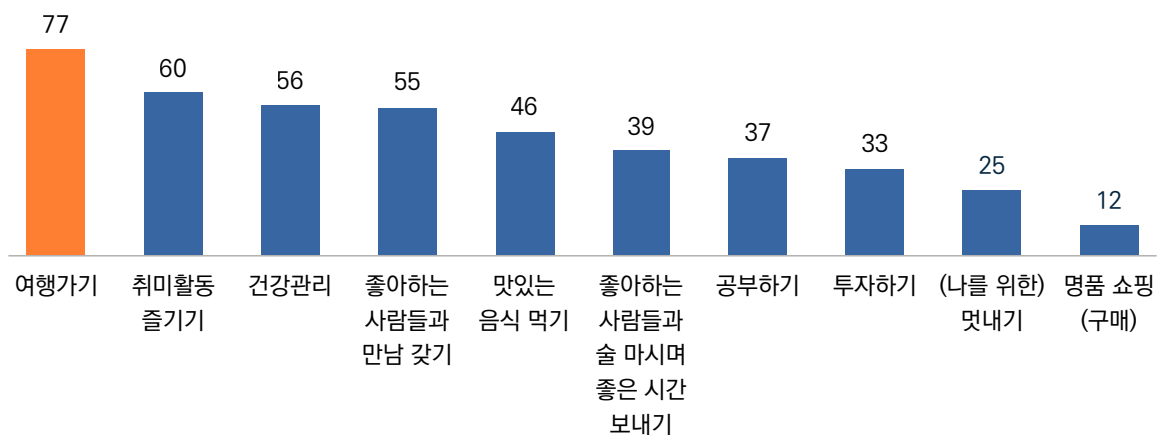
순위	20대	30대	40대	50대
1위	운동/스포츠 모임 (30%)	운동/스포츠 모임 (26%)	운동/스포츠 모임 (23%)	운동/스포츠 모임 (25%)
2위	여행 모임 (22%)	여행 모임 (18%)	여행 모임 (22%)	여행 모임 (23%)
3위	책/독서/글 모임 (20%)	맛집 방문 모임 (18%)	봉사활동 관련 모임 (19%)	봉사활동 관련 모임 (21%)

\*자료 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모임(살롱문화) 및 취향 소비 관련 인식 조사', 2022.09.28.(과거 또는 현재 정기적 모임 참여 경험이 있는 전국 만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7.20.~22)

## ◎ 시간을 투자한다면... ‘여행가기’, ‘취미활동 즐기기’에 투자하겠다!

- ▶ 앞에서 취향이 같은 모임에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용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간을 쓴다면 투자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여행가기’가 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취미활동 즐기기’ 60%, ‘건강관리’ 56%,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남 갖기’ 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회에서 여러 모임을 구성할 때 참조되는 데이터이다.

[그림] 시간을 쓴다면 투자하고 싶은 일 (중복응답, %)



\*자료 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모임(살롱문화) 및 취향 소비 관련 인식 조사', 2022.09.28.(과거 또는 현재 정기적 모임 참여 경험이 있는 전국 만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7.20.~22)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14호\(2022년 10월 1주\)](#)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대통령 발언 공방 관련 인식, 한글과 한자 사용 등

[전국지표조사\(주요 4개 조사회사\) 리포트 제81호\(2022년 10월 1주\)](#)

- 국정운영 평가, 국정운영 신뢰도, 정당지지도, 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에 대한 인식 등

◎ 사회 일반

[OECD 男 43.4명 육아휴직 갈 때 한국은 1.9명](#)

국민일보\_2022.09.28.

[지난해 하루 37명 '극단 선택'...10대는 1년새 10% 늘었다](#)

중앙일보\_2022.09.28.

[팬데믹이 삶 바꿨다, 2030 뱃살 늘고 여행은 당일치기](#)

중앙일보\_2022.09.28.

[정부가 안 사주면 폭락...'쌀값 함정'에 빠진 한국농업](#)

매일경제\_2022.10.05.

[폐지 좁는 노인 규모 첫 파악 ... 약 1만5000명 하루 평균 11시간20분 노동](#)

여성신문\_2022.10.06.

[안전불감 키포드... 올해 3600명 구급차 실려갔다](#)

조선일보\_2022.10.07.

[국민 10명 중 7명은 물가안정 대책 효과 체감 못해](#)

연합뉴스\_2022.10.04.

[애 낳을 병원 없어, 눈물의 원정출산...시군구 4곳 중 1곳 이렇다](#)

중앙일보\_2022.10.09.

[너무 열심히만 산 당신에게 찾아오는 불청객, 번아웃 \[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동아일보\_2022.10.02.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3년...직장인 73%는 여전히 "참는다"](#)

연합뉴스\_2022.10.10.

◎ 청소년 / MZ세대

[OECD교육지표 발표... 대졸자 비중은 1위, 고용률은 최하위권](#)

조선일보\_2022.10.08.

['1인당 공교육비' 중고생은 OECD 2위, 대학생은 30위](#)

중앙일보\_2022.10.04.

[학부모 10명 중 9명 "입학 전 한글교육"](#)

매일경제\_2022.10.09.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기획기사 : 2022 캠퍼스 성범죄 보고서, (시사저널)**

- [1. 대한민국 대학에서 2일에 1번 성범죄가 발생한다](#) \_2022.10.06.
- [2. 체대교수가 성범죄 상담을?...“대학 인권센터 뜯어고쳐야”](#) \_2022.10.06.
- [3. 숫자로 보는 ‘2022년 캠퍼스 성범죄’ 실태](#) \_2022.10.06.

◎ **트렌드**

[마케팅 대가의 예언...“이것 변하지 않으면 5년내 망한다”\[세지포\]](#)  
매일경제\_2022.09.22.

◎ **건강**

[작년 노인 진료비 41.5조...치매는 여성, 뇌졸중은 남성이 많아](#)  
중앙일보\_2022.10.04.

["코로나도 아닌데"...전세계 매년 300만명 이것 때문에 사망](#)  
매일경제\_2022.10.05.

◎ **국제**

[美도 이대남·이대녀 인식차...“진보적” 20대女 44%, 20대男 25%](#)  
매일경제\_2022.10.06.

◎ **기독교 / 종교**

[미국인 53% “성경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다”](#)  
더미션(국민일보)\_2022.09.27.

[\[단독\] ‘비대면 예배’ 열리자 ‘온라인 헌금’도 급증했다](#)  
더미션(국민일보)\_2022.09.28.

[수치로 드러난 고교 기독 동아리 효과... 10명 중 8명 긍정 평가](#)  
더미션(국민일보)\_2022.10.04.

[26개국 10대 청소년 절반 "예수님은 사랑" 고백](#)  
데일리굿뉴스\_2022.10.09.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기획기사 : 행복한 노후 탐구, (조선일보)

1. [‘칠순 거지’ 안 되려면... 100세 시대에 ‘무전장수’ 피하는 법](#) \_2022.08.22.
2. [간병지옥 무서워서 보험든다? ‘간병보험’ 정말 답일까](#) \_2022.08.23.
3. [“있을 때 잘하지” 20년 넘게 살다 연금 나눠 이혼한 아내 벌써 6만명](#) \_2022.08.30.
4. [“옆집 부부, 지중해크루즈 타던데...” 연금격차 연 1100만원 시대](#) \_2022.09.05.
5. [우물이 말라버리면 노후 파산... ‘7잘8잘’ 아시나요](#) \_2022.09.10.
6. [628만명 받는 기초연금 아깝게 탈락? 패자부활전 노려보자](#) \_2022.09.12.
7. [‘땅거지’의 말로... 은퇴하면 ‘은행빚’이 진짜로 무서워진다](#) \_2022.09.18.
8. [“오래 살까봐 무서워서” 보험 왕창 들면 ‘은퇴 낙원’ 멀어진다](#) \_2022.09.28.
9. [“은퇴하면 부부 공동 취미부터 갖겠다고? 커다란 착각”](#) \_2022.09.30.



###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상도중앙교회, 삼천포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중앙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메가리서치, (주)삼신테크,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 후원 개인 |

가우진,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권순홍,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식,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형, 김지한,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홍기, 계만석, 나광균,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운, 박세웅, 박영철, 박영호,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연우,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오뜸, 신명자,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식,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영민,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주일, 이지형,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호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병철, 전용림, 전치영, 정기목, 정부할,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도환, 지연희,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차원숙,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항재, 최현갑, 한병록, 한재웅,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현풍,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 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 만든 이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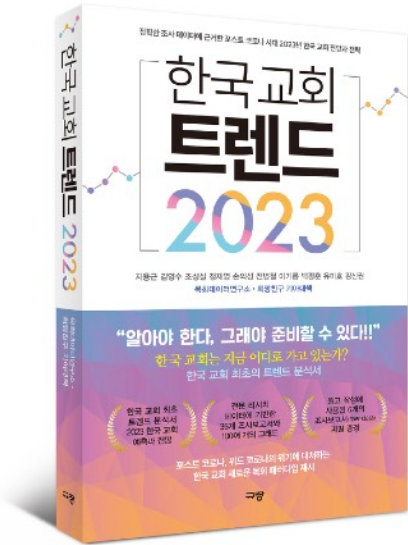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mailto: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mailto:marpro@mhdata.or.kr)

민선영, 유명민, 송예슬, 김찬솔

##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 연구소 소식 .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출간 |**

-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조사 데이터에 근거하여 한국교회의 트렌드를 진단하고 예측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책을 6개월 간의 긴 작업을 거쳐 국내 최초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목회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록으로 원고 작성을 위한 6개 조사보고서를 드립니다.)

보도 자료

책 구입 안내

**제16회 바른신학 균형목회 세미나 안내 (한국교회지도자센터)**

온라인 등록

일 시 : 2022년 10월 17일(월), 오후 1시 ~ 오후 9시  
18일(화), 오전 9시 ~ 낮 12시

참여방법 : 유튜브 실시간 중계, 온라인 등록

\*본 세미나는 담임목사를 초청하여 마임비전빌리지에서 대면으로도 진행되며 대면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무료 참여 세미나 자료는 PDF파일 제공

유료 참여 세미나 자료집 및 기념품, 박종순 목사 신간 설교집 1권 등 제공

\*세미나 자료집 출판 일정에 따라 세미나후 우편으로 제공 될 수도 있습니다.

\*PDF파일은 세미나전 문자로 링크전송 됩니다.

신청대상 : 목사, 전도사, 신학생, 교회지도자

입금계좌 : 국민은행 387201-01-113126, 사단법인 한지터

문 의 : 02-704-4018 사무처